

## 6. 풍성한 삶의 원리: 신뢰로부터 오는 당당함!

본문: 요한복음 10장 3-5, 10절

-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줬던 '용기'를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용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용기 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일들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만한 그런 내용들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들이 분명합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목자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목자와 양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참된 관계는 역할에 충실할 때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 독특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젊은 리더를 위한 만화에서 찾은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장용호 집사입니다. 그 책을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현세 만화 [꿈꾸는 제국]의 주인공 '야스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정의와 함께 야스오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죠.

## 신뢰에서 오는 풍성함

성경에는 풍성함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포도나무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풍성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기에, 그 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풍성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그 분이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소망의 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곤고할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인내의 순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 풍성함을 더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로부터 오는 노력'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헛되지 않은 노

력을 하는 인생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양이 풍성함을 누리가 위한 최소한의 노력 아니, 최대의 노력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양이 따라가지 않으면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도둑이 와서 부르는 소리에 따라가는 양은 풍성함이 아니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지 않을까요?

더욱 노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영표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에 보면 ‘노력의 복리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4 용지 한 장의 두께는 0.1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접으면 0.2mm가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30회를 접으면 1.073km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접으면 2.146km가 되는 것입니다.

노력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0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31회를 하면 1회 더 한 것이 아니라, 30회를 한 것에 2배를 한 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노력의 복리 원칙’입니다. 어린 시절 축구 코치가 팔 굽혀펴기를 10회 하라고 하면 11회를 하고 50회를 하라고 하면 51회를 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라 하더라도 프로선수와 2대 1로 경기를 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축구선수의 연봉은 평범한 선수 두 명을 합친 연봉보다 훨씬 높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해진 11명이 경기하는 축구경기에서 한 명의 우수한 선수의 조그만 차이가 승부를 가르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노력이란 언제나 노력한 만큼 노력한 다음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다.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다 이상은 안 돼’ 라는 말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그저 노력의 출발점일 뿐이다.”*

## 친밀함 그리고 당당함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발견하게 되는 풍성함의 원리는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에 근본이 되는 것은 ‘친밀함’이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현상을 보지만, 과정을 알지 못하는 현상은 때로 피상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한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었을까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한 양이 어떻게 목자를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늘 자신을 불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경험의 시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신뢰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도 뒤에 서서 양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늘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앞서 가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 .

예수님은 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앞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함의 원리란 목자를 아는 것,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민수기 말씀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말씀을 준비하고 녹화하기 위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고, 지명과 관련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보았던 장소입니다.

3월에 우기이기는 했지만 푸르른 들판에 가는 곳마다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계절이 뚜렷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땅과 비교한다면 척박한 땅이지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감탄할 만한 농지는 아니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만 1년을 지나왔던 사람들에게 그 땅은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포도송이와 올리브,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커다란 아낙자손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경외심이어야 할 텐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땅을 가서 보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그 땅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민수기 13장 32-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풍성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풍성함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40년이나 광야를 지나며 여전히 지치지 않고 힘이 여전한 것은, 그들을 여기까

지 인도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한 번 상상의 나라를 펴고 이 상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장’ 그 땅에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가져다 준 감정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부정적 보고는 부정적 생각으로, 상황이 크게 보이니 자신들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환경’은 늘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에 왜 그리 중요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여기서 죽게 하는지,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후회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후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지금까지 지나 온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 다수의 논리를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누릴 삶의 질적 차이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폰더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에게서 들었던 조언과 인생의 법칙들이 나오죠. 그 중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니까요. 일저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떤 것을 믿는다 해도, 그건 여전히 어리  
석은 일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리 나 혼자 일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  
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 속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아요.”*

풍성한 삶의 원리!

우리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

다수에 따라,

논리에 따라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합니  
다. 예전에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목자를 따라 간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  
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갈렘에게로 돌아와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실 것을  
보았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  
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등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은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 45년이 지나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45년 전 그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말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고,  
여호수아도 그 말을 분명히 들었으니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찬양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일까요?

갈렘이 달라고 한 땅은 젖고 꿀이 흐르는 꿈같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45년 전에 그가 보았고 고백했던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 산지가 아직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땅입니다. 갈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한 곳에 머물렀다는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땅을 약속에 의지하여 싸워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갈렘의 나이 85세에 40살에 가졌던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그의 삶이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오는 당당함이란.

환경과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기대’가 있는 삶 말입니다.

우리교회에서 이제 시니어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60이 청장년으로 분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84세의 갈렘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인생이야말로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가까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인생은 결국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또 너무 슬픈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최진실 씨의 전남편 조성민씨가 자살을 했대요.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말 여건만 된다면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보다 더 아프게 한 게 이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 조성민 씨가 불과 2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내 인생은 현재 5회 말인 것 같습니다. 1회와 2회에서 고전하다가 3회 초에 점수를 확 냈는데 아쉽게도 4회 말에 다시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5회나 6회와 같습니다. 그 간의 시합작업을 스승 삼아 열심히 살면 충분히 재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2년 전 이야기예요. 2년 동안 별로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그때는 단지 의욕이 있었을 뿐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역전 당한 상황 같지만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9회 말까지 반드시 다시 뒤집는다는 의욕이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 2년 사이에 무슨 의욕을 꺾는 못된 것들이 장난을 쳤는지 모르지만 자살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길이 없네요. 자식 없다 셈 쳐 주세요.”

2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더 나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인생은 무거워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가벼워서 절망 안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욕, 자신감, 당당함을 빼앗아 가려고 발악하는 것이 영적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60세 이상 된 분들로 교회 내 '시니어 부서'를 만들며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는 새해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제목이 있는데 올해는 분당 우리교회가 60세 이상의 시니어부서가 활력이 일어나고 궤도를 찾아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역자를 배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동을 걸었으니 전성기를 맞아야 해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모임인 행복한 모임이 글자 그대로 진짜 행복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갈렘을 닳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여든아홉 되세요.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문안드릴 때마다 서너 번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미리 주신 거 되잖는 거 아녘니까?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마음으로 뭐든지 요구하세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남매가 어머니께 얻어서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데, 가끔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는지 가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권사님."하고 말합니다.

저는 마흔 살의 갈렘도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지만 여든다섯 살의 갈렘도 너무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다. 나는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시니어 행복한 모임 모두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여든 다섯부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나이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85가 되어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무르익어서 어르신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누구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되기를 바랍니다.



### 지도력은 모범을 요구한다.

미국의 대기업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입 사원 채용시 가장 역점을 두는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가 있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단연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협동심을 손꼽았다. 물론 특수한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화목하게 일할 수 있기를 원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을 원만히 잘해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삶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의 대기업주였던 존 록펠러는 말했다. “나는 이 땅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사람들의 인술 능력을 가장 값비싸게 쳐줄 것이다.”

또 2000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해고시킨 3명과 해고 이유를 답하라는 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동일한 답변이었다. 해직자들은 사람관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즉 사람들은 기술이 미숙해서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인 관계의 능력이 부족하여 실직하는 것이다.

<열매맺는 지도자, p102>

### 링컨의 인간관계 와 지도력

링컨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스탠튼은 링컨보다 고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 같이 서게 되었을 때 스탠튼은 링컨같은 애송이하고는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스탠튼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스탠튼이 비록 나에게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튼을 임명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총 맞아 죽었을 때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스탠튼이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죽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매도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로는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출처: 인터넷 자료>